

봉화 사과 농업의 보급과 수용에 관한 연구

이상율(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sangyool@cu.ac.kr)

한국의 토종 사과(능금)는 1890년대 서양의 선교사에 의해서 서양의 사과 도입과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다. 대구의 사과 역시 선교사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나 곧바로 일본인 농업이민에 의해 독점되었다. 식민지 초기 경북사과의 재배지는 낙동강, 금호강 연안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형성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사과의 주산지는 남부지방에서 북한지방으로 이동하였으나, 8.15 해방 이후에는 한국 사과의 주산지 가운데 하나였던 대구·경북은 남한 생산량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집중되었다.

한편 경상북도 내에서도 사과의 주산지가 경북의 남부지방에서는 점차 쇠퇴하고 경북 북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본 연구 지역인 봉화군에서는 60년대의 30ha에서 75년에는 600여ha 1986년에는 885ha로 1990년에는 재배 면적이 1320ha로 증가하였다. 90년대 중반 이후 경쟁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과가격이 낮아지면서 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급속히 재배면적이 줄어들었음에도 봉화군은 1996년까지는 꾸준히 면적이 늘어나 1760ha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 봉화군에서도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였다. 봉화군에서는 군 농업소득 중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사과산업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키가 낮고 고밀식의 사과재배체계를 유럽최고의 사과생산지인 이태리북부 남티롤에 견학단을 파견하여, 새로운 사과대목을 도입하고 우량묘목 생산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결과 봉화사과의 재배 면적은 2002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새로운 사과 생산체제로 변화는 봉화군내의 춘양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춘양면에서도 특히 서벽리의 경우 사과 생산이 주산업으로 성장하였다. 1968년 이전에는 이 지역은 감자 및 옥수수 등의 전형적인 산간지역 작물중심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선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주민의 75%이상이 사과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지역에서 키낮은 사과의 고밀식 재배체계를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배경은 관, 학, 주민들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과재배 방식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이 지역의 자연조건인 큰 일교차에 의해서 우수한 사과 생산이 가능한 조건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농산물 수입개방이 사과분야로 확대되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 때문에 키낮은 사과원으로 과원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생산성향상과 고품질 과원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기존 과원을 폐원하고 키낮은 사과원으로 갱신하는 농가와 친환경 인증 고품질 사과 생산의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정책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과 생산체계 변화를 수용하는지를 주민들의 면담에 의해서 파악하였다. 규모별 평균농가의 과원 경영은 약 0.9ha로서 협소한 편이며, 50-60대 연령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과체계의 변화는 생산연령 가운데 비교적 낮은 40-50대에서

가장 뚜렷하고,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기존의 과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50대 연령층에서는 생산면적도 정부지원의 한도인 3000평 이상의 토지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있다.

사과 유통체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과 유통에서 수집상과 청과상의 역할이 위축되고, 대형 유통센터와 생산자 조직이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사과 재배에 따른 국내에서 몇 년 뒤 생산량의 증가에 기인할 가격의 하락과 중국으로부터 사과 수입에 따른 가격 폭락의 우려 등 불확실한 농업환경으로 새로운 재배체계의 수용은 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